Pelléas und Mélisande, Op. 5

- □□

정보

개요
곡명: Pelleas und Melisande, Op. 5

작곡가: Arnold Schoenberg (1874–1951)

작곡 시기: 1902년 4월 스케치 시작, 1903년 2월 28일 정서본 완성

최초 연주: 1905년 1월 25일, 빈 Großer Musikvereins-Saal, Wiener Konzertverein, Arnold Schoenberg 지휘로 기록됨

원작: Maurice Maeterlinck의 희곡 Pelléas et Mélisande

장르: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교향시

소요 규모: 단악장, 약 40–45분

IMSLP: Pelleas und Melisande, Op. 5 (Schoenberg, Arnold)

Wikipedia: Pelleas und Melisande (Schoenberg)

Arnold Schoenberg의 Pelleas und Melisande, Op. 5는 Maurice Maeterlinck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단악장 교향시다. 작품 전체는 분리된 악장 없이 연속해서 진행되지만 , 숲에서의 만남과 결혼, 반지와 머리카락 장면, 사랑과 살해, Mélisande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네 장면군이 내부 흐름을 이룬다. 이 글은 1902–03년에 완성된 관현악 원작과 1911년 초판 및 1920년 개정판의 전승을 함께 다룬다.

출판 정보와 작곡 배경

Schoenberg는 1902년 4월에 첫 스케치를 시작했고, 1902년 7월 말 초고를 마친 뒤 1903년 2월 28일
정서본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Maeterlinck의 희곡을 오페라로 옮기려 했지만 관현악 교향시로 방향을
바꾸었다. 작곡 당시에는 Fauré와 Debussy가 같은 희곡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작곡가 측 해설도 전해진다.

초판은 Universal Edition이 1911년 빈과 라이프치히에서 출판했고, 1912년에 연주 파트가 뒤따랐다. 1920 년에는 개정판이 나왔으며, 1922년 연구용 총보와 1924년 피아노 축약판이 이어졌다. IMSLP에는 1903년 자필 원고, 1912년 판본, 1920년 개정 총보와 파트, 피아노 네 손 편곡이 구분되어 있다. 이 글의 편성은 1920 년 개정 총보를 기준으로 하며, 1947년에 구상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발레용 4–5악장 모음곡 계획은 별도

작품으로 세지 않는다.

소요 시간

공식 작품 자료는 약 40분으로 제시한다. Vienna Symphony는 44분, IRCAM은 45분을 제시하므로 ,
지휘자의 템포와 판본에 따른 실제 공연 시간은 약 40–45분으로 잡을 수 있다. 단악장 작품이므로 악장별 시간 대신 전체 범위를 제시한다.

편성

1920년 개정 총보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목관: 피콜로, 플루트 3(제 3플루트는 제 2피콜로 겸함), 오보에 3(제 3오보에는 제 2잉글리시 호른
겸함), 잉글리시 호른, E♭ 클라리넷, B♭·A 클라리넷 3(제 3클라리넷은 제 2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3, 콘트라바순
금관: F조 호른 8, E·F조 트럼펫 4, 알토 트롬본, 테너 ·베이스 트롬본 4, 콘트라베이스 튜바
타악기와 건반: 팀파니, 글로켄슈필 , 스네어드럼 , 베이스드럼 , 심벌즈, 트라이앵글 , 탐탐, 하프 2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IRCAM은 더 많은 목관 겸용 파트와 하프 2대 또는 4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여 파트와 기관별 요약에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연용 편성은 선택한 판본의 총보와 파트에 따라 정해진다.

한 악장 안의 네 장면군

이 네 구분은 별도 악장이 아니라 Maeterlinck의 장면과 Schoenberg의 순환적 동기가 만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 흐름이다. 공식 해설은 바깥 형식이 소나타 운동과 닮았고, 그 안에 교향곡의 다악장적
성격이 잠재한다고 설명한다.

숲의 만남과 운명

Die Achtel ein wenig bewegt – zögernd 와 Heftig 으로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Golaud는 숲에서 Mélisande 를 만나고, 두 사람의 결혼과 병든 왕국의 세계가 제시된다. Mélisande의 12/8 동기와 반복되는 운명 동기가 초반 재료를 이루며, Golaud의 호른 동기와 Pelléas의 인물 동기가 뒤이어 연결된다. 이 부분은 줄거리를
요약하는 서두이면서 동시에 이후 장면을 되돌려 부를 동기의 출발점이다 .

반지와 스케르초 성격의 장면

Lebhaft, Sehr rasch, Ein wenig bewegt 로 표시되는 빠른 구간에는 분수에서의 반지 놀이와 탑 장면이 놓인다. Mélisande가 반지를 잃고, 탑에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Pelléas와 접촉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반지 동기와 불안한 운동이 서로 얽힌다. 지하 동굴의 어두운 장면도 이 흐름에 연결되어, 빠른 움직임이 궁정의 비밀과 Golaud의 질투를 함께 드러낸다.

머리카락, 사랑, 죽음

Langsam 에서 Sehr langsam 으로 넓어지는 중심부는 머리카락 장면, Pelléas와 Mélisande의 사랑과 이별, Golaud의 폭력, Pelléas의 살해를 묶는다.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모방, 하프, 독주 현과 첼로가 머리카락
동기를 이어 가며, 인물 사이의 관계가 말보다 음색과 선율의 반복으로 드러난다. 느린 장면은 별도의 제 2 악장이 아니라 단악장 안에서 비극이 깊어지는 구간이다.

종결과 Mélisande의 죽음

Etwas bewegt, In gehender Bewegung, Breit 으로 이어지는 종결부에서는 사랑과 죽음의 재료, 하인들의 움직임, 앞서 나온 운명 ·인물 동기가 다시 모인다. 첫 트롬본의 글리산도와 관현악의 밀집된 회귀가 Pelléas의 죽음 이후 남은 긴장을 이어 가고, Mélisande의 죽음과 궁정의 침묵으로 음악이 끝난다. 마지막은 새로운
사건을 덧붙이기보다 이미 제시된 동기를 순환시켜 원작의 불가해한 비극을 닫는다.

원작, 동기, 형식의 관계

Maeterlinck의 희곡에서 Golaud는 숲에서 만난 Mélisande와 결혼하고, 그녀는 그의 이복동생 Pelléas와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을 나눈다. 반지, 머리카락, 지하 동굴, 숲의 이미지가 반복되며 Golaud의 질투는 Pelléas의 죽음과 Mélisande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Schoenberg는 장면을 하나씩 묘사하는 대신 인물과 사건을 동기와 음색으로 회귀시킨다 .

작곡가의 1949년 주석은 원작의 일부 장면을 생략하고 순서를 조정했지만 , 말이 없어도 인물과 사건의 윤곽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Pelleas und Melisande 의 내부 네 장면군은 문학적 순서와 완전히 같은 대본이 아니라, 단악장 소나타 운동과 순환적 장면 배열이 겹친 결과다. 이 설계는 Schoenberg가 조성을 유지한 후기낭만 관현악 어법에서 인물 심리와 형식적 회귀를 동시에 조직한 방식을 보여 준다.

초연과 초기 수용

Schoenberg의 공식 작품 페이지와 Belmont Music Publishers는 1905년 1월 25일 빈 Großer Musikvereins-Saal에서 Wiener Konzertverein이 연주했고 Schoenberg가 지휘했다고 기록한다. Vienna Symphony의 작품 메타데이터는 같은 날짜와 단체를 확인하면서 지휘자를 Alexander von Zemlinsky로 적어 표기가 갈린다. 초연 전 악보를 살핀 Gustav Mahler가 작품의 복잡성을 지적했다는 공식 회고도 남아 있다.

Schoenberg는 1949년 회고에서 초연이 소동과 격렬한 비평을 불렀고, 약 6년 뒤 Oskar Fried의 지휘로 공연했을 때 비로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기록은 음악의 형식 분석과 별개로, 대편성과 고밀도 동기 작업을 지닌 작품이 초기 청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 주는 수용사 자료다. 같은 Maeterlinck 희곡을 바탕으로 한 Debussy의 오페라와 비교할 때에도, Schoenberg의 작품은 말과 무대 대신 관현악의 동기 회귀로 사건을 압축한다.

주요 자료

Pelleas und Melisande, Op. 5 (Belmont Music Publishers)

- Pelleas und Melisande, Op. 5 □□ (Arnold Schoenberg Center)
- Pelleas and Melisande, symphonic poem op. 5 (Vienna Symphony)
- Pelléas und Mélisande, Op. 5 (IRCAM)
- Pelleas and Melisande (Los Angeles Philharmonic)